논어 15편 위령공 9장 · 원문·풀이

子貢問爲仁。子曰：「工欲善其事，必先利其器。居是邦也，事其大夫之賢者，友其士之仁者。」

독음 · 자공문위인 자왈 공욕선기사 필선리기기 거시방야 사기대부지현자 우기사지인자

쉬운 풀이(요약) · 장인이 일을 잘하려면 도구부터 갖추듯, 인을 실천하려면 현명한 대부와 어진 선비를 가까이해야 한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貢 바칠 공 공 / 問 물을 문 문 / 爲 할 위

仁 어질 인 인 / 曰 가로 왈 / 工 장인 공 공 / 欲 욕심낼 욕 욕

善 착할 선 선 / 其 그 기 / 事 일 사 사 / 必 반드시 필 필

先 먼저 선 선 / 利 날카로울 리 리 / 器 그릇 기 기 / 居 살 거 거

是 이 시 시 / 邦 나라 방 방 / 也 어조사 야 / 大 클 대 대

夫 지아비 부 부 / 之 갈 지 / 賢 어질 현 현 / 者 놈 자

友 벗 우 우 / 士 선비 사 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